

삼성D·LGD, 제품 다변화 주력… 글로벌시장 입지 다진다

2034년 車디스플레이 시장 29조

삼성디스플레이

작년 글로벌시장 점유율 55.9%
차량용 OLED브랜드 ‘드라이브’

LG디스플레이

3분기 누적 매출액 1.6조 달성
‘탠덤 OLED’ 상용화 격차 벌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와 업황 침체에 직면한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으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품군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프래지던스리서치는 글로벌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가 매년 연평균 4.5%씩 성장해 오는 2034년 202억 5000만달러(한화 약 2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완성차 중심 산업 구조가 배터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 전경.

/LG디스플레이

리·디스플레이·센서·소프트웨어로 재편되면서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성장 잠재력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차량용 OLED 출하량과 매출에서 시장 1위를 유지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지난해 글로벌 차량용 OLED 시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이 55.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출하량 기준으로는 164만대, 매출로는 4억 9200만달러(약 7000억원)를 기록했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1~3분기 누적

차량용 디스플레이 매출로 1조 6249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체 매출의 8.7% 수준으로 비중이 크진 않지만 분기마다 약 5000억원대 매출을 꾸준히 내며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디스플레이 업계는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지난 6월 기흥 삼성디스플레이리서치(SDR)에서 취임 첫 임직원 소통행사를 통해 차량용 OLED를 고객과 제품 다변화에 주력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LG디스플레이는 또한 지난 4월 열린 ‘OLED&XR 코리아 2025’ 행사에서 전체 차량용 디스플레이 매출액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차량용 디스플레이 매출 중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였는데 오는 2028년 40%, 2030년 50%까지 상승시키겠다는 포부다.

업계의 기술 경쟁도 가열되는 모습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차량용 OLED 브랜드 ‘드라이브’를 선보였다. 하만과의 협업을 통해 차량용 OLED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완성차 제조사

별 맞춤형 디스플레이 설루션 제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대시보드 전면을 가로지르는 ‘필러 투 필러’ OLED를 통해 수주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탠덤 OLED’를 상용화해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다. 플라스틱OLED와 어드밴스드 썬(ATO) 등 프리미엄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시대를 겨냥한 초대형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지속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실제 메르세데스-벤츠는 S클래스시리즈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제어 장치인 센터페시아에 LG디스플레이가 만든 플라스틱OLED를 탑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는 SDV의 핵심 인터페이스로 자리매김하며 자동차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차량용 OLED는 디스플레이 기업에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제공하는 전략적 제품군으로 부상 중”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이랜드, ‘블프’ 앞두고 물류센터 화재 ‘비상’ D램 가격 급등… 스마트폰 원가압박 상승

‘연중 최대 성수기’ 천안물류센터 마비
무신사 등 이랜드 상품주문 어려워
“재고 소실… 대체물류 확보에 총력”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이랜드패션에 악재가 닥쳤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천안 패션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물류망이 마비되면서 연중 최대 성수기인 4분기에 피해를 입은 건 물론 이랜드 브랜드가 입점한 주요 패션 플랫폼 연말 행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17일 유통업계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천안 패션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이랜드패션은 의류 이월 재고 및 가을·겨울(FW) 상품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천안 패션물류센터는 패션 물류를 처리하는 물류센터 중 국내 최대 규모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19만 3210㎡(약 5만 8000평), 축구장 27개 넓이에 달하는 초대형 물류 거점으로 스파오, 뉴발란스, 후아유 등 10개 브랜드 상품

1100만 점이 보관돼 있었다. 구조물을 중장비로 해체하며 불씨를 정리해야 하는 만큼 완전 진화까지는 1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는 주요 패션 플랫폼이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시작한 시점에 발생해 더욱 뼈아프다. 무신사는 이달 16일, 지그재그, 에이블리, 4910은 이달 17일부터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작했지만 이랜드 브랜드 상품은 물류 문제로 인해 주문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이 날 오후 1시 기준 무신사 스토어에선 이랜드의 SPA 브랜드 스파오 제품 1453개 중 99.31%에 달하는 1443개 제품이 품절 처리돼 있어 주문이 되지 않았다. 뉴발란스도 등록된 제품 611개 중 39.6%인 242개가 모두 품절 상태다. 무신사 측은 공지와 함께 “현재 무신사로지스틱스를 통해 별도로 보관·배송되는 일부 풀필먼트 상품만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패션업계 특성상 할인 행사가 몰려

있고, 고단가 아우터 등이 판매되는 4분기에 실적이 집중된다는 점 역시 악재다. 지난해 이랜드그룹 지주사인 이랜드월드의 연결 기준 실적을 보면 4분기 매출액은 1조 6187억원, 영업이익은 1176억원으로 분기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평균 매출이 1조 2777억원, 영업이익 512억원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4분기가 한 해 실적을 좌우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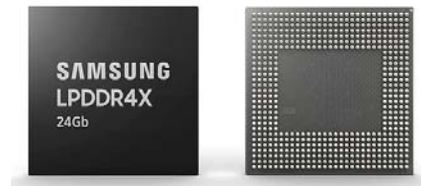
패션 부문은 이랜드그룹의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이랜드월드의 패션 부문은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4조 9443억 중 51%에 달하는 2조 5311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그룹 내 비중이 절대적이다.

이랜드그룹은 비상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랜드 관계자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물류인프라와 의류 재고가 소실되는 피해가 있었다”며 “현재 국과수에서 CCTV를 확보해 화재 원인을 규명 중”이라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4분기 D램 가격 상승률 23% 예상
삼성, 내년 출시되는 갤럭시S26
전작 대비 약 20% 상승 불가피할 듯

인공지능(AI) 투자 확산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폭증하면서 D램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D램 가격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모바일용 저전력 D램 가격 역시 덩달아 오름세를 보이자, 스마트폰 업계는 부품 원가 부담 속에서 소비자 가격 인상을 억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장조사업체 트랜드포스는 4분기 D램 가격 상승률을 전분기 대비 18~23%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용 저전력 D램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급형에 들어가는 LPDDR4와 첨단 폰에 내장되는 LPDDR5의 기존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38~43%일 것으로 예상했다.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내년 초 신제품 출시를 앞둔 스마트폰 업체의 주문이 몰린 것이 가격 강세를 부추긴 요인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 ‘24Gb LPDDR4X D램’.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갤럭시S23 시리즈부터 갤럭시S25까지 기본형(256GB) 모델 가격을 115만 5000원으로 유지해왔다. 하지만 내년 초 출시 예정인 갤럭시S26은 전작 대비 약 20% 안팎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 체감하는 가격 상승 폭은 더욱 클 수 있어 구매를 부담스러워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따른다.

S26시리즈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인 ‘엑시노스2600’을 탑재해 원가를 절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다만 일부 모델은 퀄컴 칩을 병행 탑재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이 경우 원가 절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현정 기자 hyeon@

전국 소매판매 13개 분기만에 ‘증가’ 전환

데이터처, 3분기 지역경제동향
17개 주요 시·도 중 11곳서 늘어

올해 3분기 전국 소매판매가 13개 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17개 주요 시·도가운데 11개 시도에서 소비가 늘어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7~9월 기간 전국 소매판매는 지난해 동분기에 비해 1.5% 늘었다.

그간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2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한 바 있다. 올해 2분기에 보합

(0.0%)을 기록한 뒤 3분기에 증가로 돌아선 것.

11개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늘었다. 특히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가 늘면서 세종(8.8%), 인천(5.5%), 대구(5.3%) 등에서 소매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서울(-2.7%), 제주(-1.3%), 전북(-1.0%) 등 6개 지역은 감소했다. 면세점,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가 줄었다.

정선경 국가데이터처 소득통계과장은 “3분기에는 하이브리드차 등 신차 출시 영향으로 승용차 판매가 늘었고, 7월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소매

판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쿠폰이 11월까지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4분기 소매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소매판매 외에도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건설수주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플러스를 기록했다.

내수 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전년동분기 대비 26.5% 증가하며 2분기(-5.4%) 부진을 씻었다. 17개 시도 중 9곳에서 건설수주가 증가했다. 충북(104.4%), 서울(68.1%), 부산(45.9%)은 공장·창고, 주택 등의 수주가 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국민연금, 환율 상승시 ‘환헤지’ 할 수도

>> 1면 ‘1500원 공포…’서 계속

국민연금은 환율이 일정 수준에 이를 시 보유한 해외 자산의 일부를 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환헤지(위험회피)를 단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달러 실수요가 감소하고 환율이 하방압력을 받게 된다.

KB국민은행의 이민혁 연구원은 “환율이 1480원 부근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 레벨에 근접한 것은 달러 롱(매수) 심리를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한은행의 소재용 이코노미스트는 “소위 서학개미가 국민연금과 맞먹을 정도로 덩치가 커지며 외환시장의 수급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 유입을 넘어서며 수급상 달러 강세 우위를 고착화하는 모습”이라며 “어쩌면 1400원대에 익숙해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외 증권가에서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더라도 이는 한국의 국가신용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세종=김연세 기자